

드럼 세트 연주 시 그립이 연주에 미치는 복합적 영향 분석

한호석¹, 조태선^{2*}

¹청주 N실용음악학원, ²청운대학교 실용음악과

Analysis of the complex effect of grip on performance when
playing a drum set.

Ho-Seok Han¹, Tae-Seon Cho^{2*}

¹Cheongju N Music academy,

²Dept of Applied Music, Choongwoon University

요 약 드럼은 현대 대중음악에서 그립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악기이다. 기본 그립을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나 확실하게 잡는지에 따라 연주 능력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각 그립의 특징과 장, 단점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복합적 영향을 도출해 연주자들에게 실질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은 크게 트레이셔널 그립과 매치드 그립으로 나누고 세부적으로 저먼, 아메리칸, 프렌치 스타일과 하이브리드 스타일을 포함해 활용한 연주 방법에 대해 분석한다. 또한 해외 전문 드럼 사이트인 드러머 월드에 등재된 1930년대부터 현재까지 모든 드러머의 그립 방법을 참고한다. 본 연구는 드럼 세트에서 가장 기본 시 되는 그립 방법을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분석하여 여러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그립에 따라 연주적 영향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각 그립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모두 이해하고 연주를 한다면 앞으로의 연주에 한층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주제어 : 드럼, 매치드 그립, 아메리칸 스타일, 저먼 스타일, 프렌치 스타일, 트레이셔널 그립

Abstract Drum Set are representative instruments that use grips in modern popular music. Depending on how and how clearly you hold the basic grip, it also affects your performance abil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strengths, and weaknesses of each grip, derive the resulting complex effects, and present practical application plans to the drummers. The research method is largely divided into traditional and matched grips, and in detail, German, American, French, and hybrid styles are included to analyze the performance method utilized. It also refers to the grip method of all drummers from the 1930s to the present, which was registered in Drummer World, an overseas drum site. This study proposed several application plans by classifying and analyzing the most basic grip methods in drum set in detail. I was able to see that the performance impact was different depending on the grip, and I think it will be more helpful for future performances if I understand both the positive and adverse functions of each grip and play it.

Key Words : Drum, Matched Grip, American Style, German Style, French Style, Traditional Grip

*Corresponding Author : Tae-Seon, Cho(entheos@chungwoon.ac.kr)

Received December 16, 2021

Accepted March 20, 2022

Revised January 18, 2022

Published March 28, 2022

1. 서론

그립이란 사전적으로 라켓, 배트, 골프 클럽 따위의 손잡이, 또는 그것을 잡는 방식을 뜻한다[1]. 주로 무언가를 타격하기 위한 도구를 잡는 방법으로 해석된다. 금관악기나 목관악기 같은 관악기들은 그립이 아닌 파지(把持) 법이라 명명되며 스틱이나 채를 활용하여 연주하는 타악기들은 그립이라 불린다. 타악기 중 하나인 드럼 세트는 현대의 대중음악에서 그립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악기이다. 그립을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나 정교하고 정확하게 잡는지에 따라 연주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된 이유는 한 학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해당 학생은 약 5년 정도 연주를 했지만 연주 기간에 비해 기술적인 측면이 나아지지 않았다. 그래서 드럼 연주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그립을 해당인의 스타일에 맞게 변경 후 연주를 했더니 매우 호전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것은 결국 드럼 연주에 있어 그립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뜻한다.

연주자에게 맞지 않는 그립을 선택한다 해도 일정 선까지 연주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그립이 자신과 맞지 않는다면, 특히 기술적인 측면에서 더 발전이 없을 수 있다.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경우 그립의 변화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파악하고 수정, 보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그립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연주자들이 많지만 세밀히 분석해 보면 그립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다. 따라서 그립에 관한 연구를 통해 자신에게 알맞은 그립을 활용한다면 현재보다 더 발전된 연주를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2].

연구 방법은 크게 트레이디셔널 그립(Traditional Grip), 매치드 그립(Matched Grip) 두 가지로 나누어 분석하며 세부적으로 매치드 그립에 포함된 저먼(German), 아메리칸(American), 프렌치(French) 스타일과 두 가지 스타일이 혼합된 하이브리드(Hybrid) 스타일을 포함하여 분석한다. 연구 대상 범위는 해외 드럼 전문 사이트인 드러머 월드에 등재된 모든 드럼 연주자들로 설정한다. 연주 영상이 남아있는 1930년대부터 현재까지 드러머들의 그립 사용 현황을 보았을 때 트레이디셔널 그립보다 매치드 그립의 사용 빈도가 높았고 그중 아메리칸 스타일의 사용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본 논문은 그립들을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분석하여 도출한 내용을 통해, 그립에 따라 다른 복합적 영향과 여러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본론

현대의 대중음악에는 다양한 타악기들이 있으며 그중 드럼 세트는 스틱을 활용하여 연주하기 때문에 그립의 방법은 어떠한 것보다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3]. 기본적으로 활용되는 그립은 크게 트레이디셔널 그립과 매치드 그립이 있으며 세부적으로 매치드 그립에 포함되는 저먼 스타일, 아메리칸 스타일, 프렌치 스타일 그리고 두 가지 스타일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스타일이 있다.

본 논문은 각각의 그립들을 연주하는 방법과 특징, 그리고 장, 단점을 분석하여 그립에 따라 어떠한 복합적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2.1 트레이디셔널 그립 (Traditional Grip)

트레이디셔널 그립은 드럼 세트의 그립 형태에서 가장 전통적인 방식이며 레귤러 그립(Regular Grip)이라고도 불린다.

드럼 세트로 합쳐지기 이전의 드럼 라인인 심벌즈(Cymbals), 스네어 드럼(Snare Drum), 베이스 드럼(Bass Drum), 쿼드 탐(Quad Tom)으로 각기 다른 연주자들이 연주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었다.



Fig. 1. past and present drum lines picture.

현재는 드럼 라인이 행진하며 연주할 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마칭 드럼 캐리어(Marching drum carrier)라 불리는 장비를 악기에 장착시켜 양쪽 어깨나 허리에 매고 연주하는 방식이지만(Fig. 1. 오른쪽 참조), 과거에는 이러한 장비가 개발되지 않아 단순히 끈 하나를 악기에 장착시켜 한쪽 어깨에 매고 연주했다(Fig. 1. 왼쪽 참조). 끈 하나로 악기를 매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 쪽 면이 기울게 되어 오른손잡이 기준 왼손이 드럼의 후프 부분에 부딪히게 되었다. 그래서 왼손을 손등이 바닥을 보게 손을 뒤집어 잡아 초기 트레이디셔널 그립의 형태가 완성되었다. 이후 미국 남북전쟁을 거쳐 약 1900년대 초반부터

전쟁 후 남겨진 악기들을 조합해 드럼 세트가 만들어졌으며 이 시기부터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재즈 음악이 발전하게 되었다[4].



Fig. 2. Playing with the snare drum leaning backwards.[5]

이러한 영향을 받아 초창기 드럼 세트 연주자들은 매치드 그림보다 트레이디셔널 그림을 주 그림으로 활용했다. 그래서 드럼 세트를 연주할 때 어깨에 메는 방식이 아님에도 의도적으로 Fig. 2와 같이 스네어 드럼을 반대로 기울게 놓는 연주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약 1960년대까지 이러한 방식으로 연주하는 연주자들이 있었다[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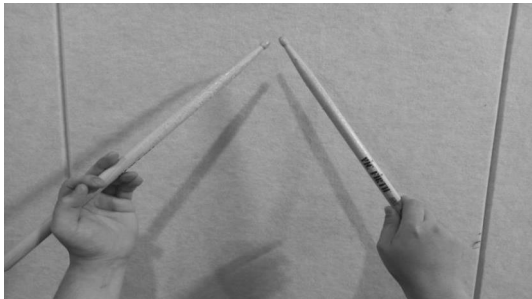


Fig. 3. Basic form of traditional grip.

Fig. 3은 트레이디셔널 그림의 기본 형태로 오른손잡이 기준 왼손은 언더핸드(Under Hand), 오른손은 오버핸드(Over Hand)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스틱이 움직일 때 스틱의 지렛대 원리를 하는 중심점이 필요한데 오른손은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으로 스틱을 잡는 곳이 중심점이 되며 왼손은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사이의 공간에 끼워 연주하기 때문에 이곳이 중심점이 된다. 오른손과 달리 왼손은 자주 사용하지 않는 근육인 무지 내전근(Adductor Pollicis)을 사용하기 때문에 처음 트레이디셔널 그림을 접한 연주자들은 이 근육의 고통을 호소하기도 한다. 또한,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을 사용하는 방법 또한 개개인마다 달라 매치드 그림과 비교해 난이도

가 굉장히 높은 편이다. 그중 핑거링(Fingering) 기법에 주로 사용되는 손가락은 엄지, 집게, 중지 손가락이다. 매치드 그림은 중심점이 되는 엄지와 집게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세 손가락을 핑거링 기법에 사용하는 반면 트레이디셔널 그림은 중심점 자체가 손가락이 아닌 그 사이에 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손가락을 핑거링 기법에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트레이디셔널 그림은 재즈 장르에서의 활용 빈도가 굉장히 높다. 드러머 월드에 등재된 519명의 드러머들 중 총 177명이 트레이디셔널 그림을 사용하였는데 그중 157명 약 88%가 재즈 장르에서 사용하였고 20명 약 11%가 팝과 록, 그 외 장르에서 사용하였다[7]. 물론 재즈에서 항상 트레이디셔널 그림이 유리하다는 것은 아니며 통계적으로 초창기에 활동하던 재즈 드럼 연주자들이 다수 포함된 영향도 있다. 매치드 그림은 양손이 같은 조건을 가지고 움직이지만 트레이디셔널 그림은 다른 조건을 가지고 움직여 분리된 동작으로 나누어 스트로크하기 때문에 매치드 그림보다 소리를 조절하기 쉽다는 연주적 특징이 있다[8].



Fig. 4. A jazz drummer who plays with a brush[9].

Fig. 4는 드럼 스틱의 한 종류인 브러시(Brush)로 연주하는 모습이다. 브러시로 연주할 때도 트레이디셔널 그림을 자주 활용한다. 브러시는 일반 스틱과 다르게 타격하는 용도가 아닌 마치 드럼 헤드를 비비는 듯한 연주자주를 이루기 때문에, 드럼 헤드와 마찰되는 면의 면적에 따라 소리의 강세나 길이가 달라진다. 트레이디셔널 그림은 왼손을 언더핸드로 연주하기 때문에 매치드 그림보다 더 미세하게 소리를 표현해 낼 수 있다.

트레이디셔널 그림을 활용한 연주에서의 단점은 양손의 높이 차이로 볼 수 있다. 양손이 같은 모양으로 그림을 잡지 않아, 특히 언더핸드로 잡는 왼손이 오른손보다 조금 낮게 잡는다. 그래서 드럼 세트 연주를 보면 움직임이 커지는 연주, 예를 들어 탐(Tom)들을 연주를 할 때 타점

을 잘못 설정하여 후프를 타격하거나 가운데를 치지 않는 등 정확하지 않은 스트로크로 연주에 결함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중점적으로 연습하여 보완한다면 드럼 세트에서의 연주가 매우 자연스러워질 것으로 파악된다 [10].

트래디셔널 그립은 재즈 연주자들의 고유 그립이 아니다. 단지 팝, 록, 컨트리, 블루스 등 재즈가 아닌 그 외 장르에서의 트래디셔널 그립 활용도가 적을 뿐이며 재즈에서도 트래디셔널 그립이 아닌 매치드 그립을 사용하는 연주자들도 다수 존재한다. 또한, 트래디셔널 그립을 사용하는 연주자가 매치드 그립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며 반대로 마찬가지이다. 음악을 연주할 때 그 음악의 다양한 특징에 따라 그립의 형태를 유지할 수도, 변형할 수도 있다. 그것은 작곡가의 의도 또는 연주자의 의도로 표현될 수 있다.

2.2 매치드 그립 (Matched Grip)

매치드 그립은 오른손과 왼손을 똑같은 형태로 잡고 연주하는 방법을 뜻한다. 양손을 모두 손바닥이 지면을 바라보고 있는 오버핸드 형태로 그립을 잡는다. 세부적으로 저먼 스타일, 아메리칸 스타일, 프렌치 스타일 세 가지로 나뉘며 그 예외로 두 가지의 스타일이 섞인 하이브리드 스타일까지 매치드 그립으로 포함시킨다.

2.2.1 저먼 스타일 (German Sty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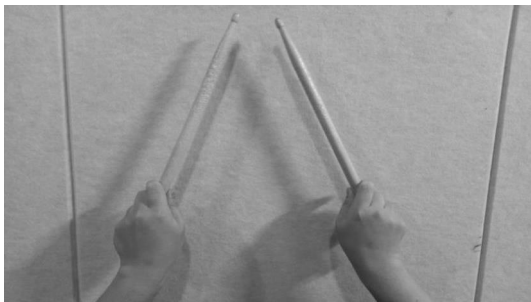


Fig. 5. German style included in the matched grip.

Fig. 5는 매치드 그립에 속해있는 저먼 스타일의 기본 그립 방법이다. 저먼 스타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손목이다. 손목이 어떤 각도로 틀어져 있지 않고 완벽히 바닥을 마주 보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러한 점은 특히 세기를 조절할 때 장점이 된다. 손가락과 손목 위 여러 근육을 함께 사용하는 아메리칸 스타일, 프렌치 스타일과는 다르게 단순히 손목의 움직임만을 활용하여 스트

로크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폭과 빠르기를 더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대신 손목만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힘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록이나 메탈, 하드코어와 같은 강하고 소리가 큰 음악을 연주할 때 다수 활용된다.

저먼 스타일 연주의 특징은 몰러(Moeller) 주법의 사용이다. 몰러 주법은 샌포드 A. 몰러라는 연주자의 이름을 딴 주법이며 1954년 19세기 남북전쟁에 참전한 연주자들을 관찰하여 그 방법을 기술한 책으로 대중들에게 알려졌다.



Fig. 6. Drummer Jim Chapin's Moeller technique[11].

몰러 주법의 가장 큰 특징은 Fig. 6과 같이 마치 채찍질하듯 스트로크 하는 휘핑 모션(Whipping motion)이라는 움직임이다. 몰러 주법을 습득하기 이전 스트로크하기 위해 스틱의 팁 부분이 먼저 올라가는 스트레이트 주법을 사용하다가 손목과 팔의 움직임이 자연스러워질 때 몰러 주법을 습득한다. 팁 부분이 먼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손목부터 올려 스틱의 무게를 무겁게 만든다. 그 다음 위에서 설명한 휘핑 모션을 사용하여 채찍질하듯 스트로크를 한다. 몰러 주법의 장점은 중력을 사용해 힘을 아껴 속도, 세기, 그리고 효율성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다. 단점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 손목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무리해서 연주, 연습한다면 손목 터널 증후군(Carpal tunnel syndrome)이나 손목 관절 관련 통증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손목을 너무 과도하게 꺾지 않는 습관을 필요로 한다. 두 번째로 움직임에 있어 손목을 먼저 사용하기 때문에 타이밍, 즉 스트로크를 하는데 시간적 오차가 발생한다. 그래서 움직임만 익히고 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숙련된 후 실전 연주에서 사용하였을 때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12].

다른 그립 스타일에서 몰러 주법을 활용할 때 보다 저먼 스타일에서 몰러 주법을 활용하였을 때 나타나는 효

과가 더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저먼 스타일에서 몰러 주법을 시작하는 것이 다른 스타일에 비해 쉽고 안정적이라는 것이며 손가락을 위주로 연주하는 프렌치 스타일을 제외한 나머지 스타일에서도 몰러 주법을 사용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드럼 세트 연주에서 양손 모두 저먼 스타일을 주 스타일로 사용하는 연주자는 드러머 월드에 등재된 519명의 드러머들 중 단 2명 약 0.3%가 사용하고 있다.

저먼 스타일은 매치드 그림의 스타일들 중 가장 많은 힘을 필요로 하며 난도가 높지만 이를 완벽하게 구사한다면 정확한 움직임과 소리로 연주자와 듣는 청중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2.2.2 아메리칸 스타일(American Sty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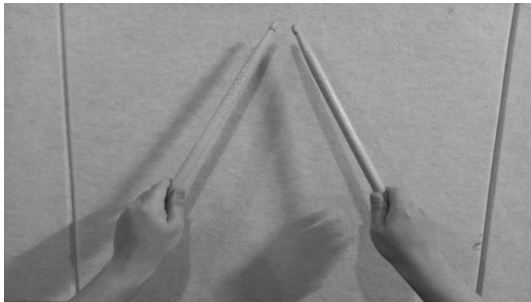


Fig. 7. American style included in the matched grip.

Fig. 7은 매치드 그림에 속해있는 아메리칸 스타일의 기본 그림 방법이다. 아메리칸 스타일의 기본 형태는 손목이 바깥 방향으로 반 정도 틀어져 있다. 약 45°의 각도가 일반적이며 연주자에 따라 5~60°로 더 틀어 연주하기도 한다.

아메리칸 스타일은 저먼 스타일의 손목 사용과 프렌치 스타일의 손가락 사용을 반반씩 혼합해 놓은 형태라고 생각하면 쉽다. 과도하지 않은 손목과 손가락의 사용으로 대부분의 드러머들이 주 그림으로 사용하고 있다. 드러머 월드에 등재된 519명의 드러머들 중 과반수인 307명 약 59%가 사용하고 있으며 하나의 장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재즈, 록, 팝, 블루스, 컨트리 등 굉장히 다양한 장르에서 쓰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메리칸 스타일 연주의 특징은 매치드 그림 세 가지 스타일 중 가장 안정적이라는 것이다. 저먼 스타일은 연주가 손목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스트로크가 절제되어 있지만 굳어있는 느낌이 든다. 또한 프렌치 스타일은 연주가 손가락 중심으로 이루어져 큰 힘을 주지 못해

약하거나 부드럽기만 하다는 느낌을 준다. 아메리칸 스타일은 다른 두 스타일의 장점을 융합해 적절한 세기와 소리를 만들어 낸다.

일반적으로 드럼을 시작하는 연주자들은 주로 아메리칸 스타일로 잡는다. 가장 쉽고 안정적이며 난도가 높은 루디먼트(Rudiment)들을 습득할 때도 장점을 모아 놓은 스타일이기 때문에 더 빠르게 습득할 수 있다.

아메리칸 스타일의 단점은 장점과 마찬가지로 안정감이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림 방법과 팔의 근육이 편안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다른 그림 스타일을 사용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물론 다른 스타일을 무조건 사용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스타일들을 습득하고 사용해 보아야 연주자 본인에게 맞는 스타일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 그림들 중 특히 아메리칸 스타일은 대부분의 연주자가 안정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다양한 그림 스타일들을 연주해 보길 권장한다.

2.2.3 프렌치 스타일(French Sty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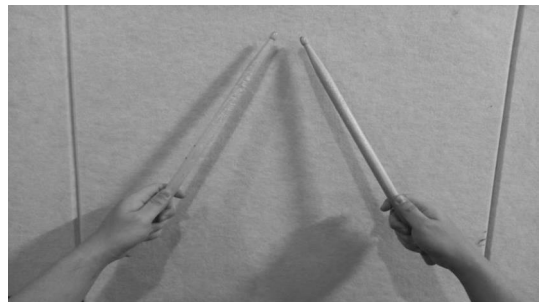


Fig. 8. French style included in the matched grip.

Fig. 8은 매치드 그림에 속해있는 프렌치 스타일의 기본 그림 방법이다. 프렌치 스타일의 기본 형태는 양 손바닥이 서로를 마주 보고 있으며 엄지손가락이 위를 향하고 있다. 프렌치 스타일에서 주로 활용되는 곳은 손가락과 손목 위부터 팔꿈치까지의 전완(前腕) 부분이다. 저먼 스타일과 아메리칸 스타일도 전완 부분을 사용하지만 움직임의 형태가 수직으로 이동하며 스트로크 시 악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완근에 압박감을 준다. 하지만 프렌치 스타일의 경우 전완 부분을 수직이 아닌 수평으로, 손목을 돌리듯이 연주하기 때문에 전완근에 압박감이 현저히 감소한다. 그래서 전완 부분의 근력이 적은 연주자들이 프렌치 스타일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프렌치 스타일은 다른 스타일에 비해 근육을 사용하는 형태가 달라 소리가 얇고 더 부드럽다. 그래서 스탠더드

재즈나 조용한, 소리가 크지 않은 음악 장르에서 주로 활용된다. 양손 모두 프렌치 스타일을 주 스타일로 사용하는 연주자는 드러머 월드에 등재된 519명의 드러머들 중 11명 약 2%가 사용하고 있다. 양손을 프렌치 스타일로 사용하는 연주자가 적은 이유는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오른손은 하이햇(Hi-Hat)이나 심벌(Cymbal) 종류를 주로 연주하지만 왼손의 경우 스네어 드럼과 같이 후프가 있는 곳을 주로 치기 때문에, 왼손이 프렌치 스타일일 경우 손목이 반 정도 돌아가 있는 그립의 특성상 후프에 부딪히는 현상이 다수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로 하이브리드 스타일로 혼합하여 연주하는 경우가 많아 양손을 프렌치 스타일로 연주하는 비율이 낮게 나온 것으로 파악된다.

프렌치 스타일 연주의 특징은 손목을 수평으로 90° 돌려 손가락 위주로 사용하게 만들어 최소한의 근육을 활용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볍고 부드러운 소리와 빠른 스트로크를 할 수 있다.



Fig. 9. The last scene of the movie "Whiplash"[13].

Fig. 9는 드럼 세트 연주를 소재로 한 영화 'Whiplash'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장면이다. 이 장면에서 주인공도 라이드 심벌(Ride Cymbal)을 연주할 때 오른손을 프렌치 스타일로 사용해 빠른 스트로크를 보여준다. 물론 어느 정도의 연습이 있었겠지만 빠른 스트로크를 할 때 다수 연주자들이 영화와 굉장히 유사하게 연주한다.

프렌치 스타일은 소리의 세기가 큰 연주를 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손목이 수직이 아닌 수평으로 움직이며 몰러 주법을 사용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더 큰 힘이 필요하거나 더 단단한 소리를 내기에는 부적합하다. 손가락을 사용하는 기술과 힘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겠지만 팔의 움직임 구조가 달라 완벽히 보완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스타일에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 방안이라 생각한다.

2.2.4 하이브리드 스타일(Hybrid Style)

하이브리드 스타일은 위에서 언급한 저먼, 아메리칸, 프렌치 스타일 중 두 가지를 혼합하여 연주하는 형태를 칭한다. 하이브리드 스타일을 주 스타일로 사용하는 연주자는 드러머 월드에 등재된 519명의 드러머들 중 22명 약 4%가 사용하고 있다.

하이브리드 스타일을 활용하는 연주자들 중 가장 많은 혼합 형태는 왼손 저먼 스타일, 오른손 아메리칸 스타일이었으며 그다음으로는 왼손 아메리칸 스타일, 오른손 프렌치 스타일 다음 왼손 프렌치 스타일 오른손 아메리칸 스타일 순이었다. 가장 많이 활용된 왼손 저먼, 오른손 아메리칸 스타일 조합은 드럼의 본래 소리를 단단하게 낼 수 있는 왼손 저먼 스타일, 심벌들과 탐들을 자연스럽게 이끌어 줄 수 있는 오른손 아메리칸 스타일로, 가장 이상적인 조합으로 꼽힌다. 그다음 왼손 아메리칸, 오른손 프렌치 스타일은 심벌을 자주 활용하는 연주에 특화된 조합으로 라이드 심벌 위주의 재즈나 서브 심벌들을 연주할 때 편리하게 적용된다.

하이브리드 스타일을 만드는 기준은 연주자 본인의 편안함이 가장 중요하다. 어느 손이 주로 사용하는 손이나에 따라 각각 새롭게 형태가 변형될 수도 있으며 양손잡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스타일들을 조합하여 사용해 보고 본인에게 맞는 스타일을 찾아 연주한다면 모든 스타일 들 중 가장 좋은 그립 스타일이 될 것이다.

2.3 그립별 장, 단점 정리

Table 1. Organizing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each type of grip.

Grip name		Strong point	Weak point
Traditional Grip		Sound balance adjustment, Left hand fingering, Brush play specialization	Difficulty level, Unstable hitting point.
Matched Grip	German	Stress control, Strong strokes, Moeller technique	Stiffness of arm muscles. Wrist pain.
	American	Easy level, Muscles and posture stability	Easy level (Don't try another grip method)
	French	Fast and soft stroke, Finger ring.	Weak stroke, Difficulties of the Moeller technique, Transformation of arm movement.

본론에서 언급된 그림들의 장, 단점을 표 1에서 볼 수 있다. 정리에서 하이브리드 스타일이 제외된 이유는 연주자에 따라 혼합되는 양손 경우의 수가 통계로 나타내기 힘들 만큼 다양하게 나타나며 그 수가 가장 적고 변수가 많이 때문에 제외한다.

트래디셔널 그림의 장점은 소리의 밸런스를 쉽게 조절할 수 있다는 점과 왼손의 핑거링 기법 사용, 그리고 브러시 연주에 특화되었다는 점이다. 단점으로는 그림법의 난도가 높으며 드럼 세트에서 특히 탐 연주 시 타점을 정확히 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매치드 그림의 첫 번째, 저먼 스타일의 장점은 미세한 세기 조절, 강한 스트로크, 그리고 몰러 주법의 사용이 있다. 단점은 팔 근육의 경직과 과도한 손목 사용으로 인한 근육, 손목 통증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아메리칸 스타일의 장점은 쉬운 난도, 근육과 자세의 안정성으로 나타난다. 장점과 마찬가지로 단점 또한 쉬운 난도이다. 그 이유는 쉬운 난도 때문에 다른 그림 스타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스타일을 시도하고 연구하려는 자세를 필요로 한다. 마지막 프렌치 스타일의 장점은 빠르고 부드러운 스트로크, 그리고 핑거링 주법의 사용이다. 트래디셔널 그림은 왼손의 형태가 달라 왼손의 핑거링만이 장점이지만 프렌치 스타일은 그림의 특성상 양손 모두 핑거링 주법을 사용하기 용이하다. 단점은 약한 스트로크, 몰러 주법 사용의 어려움, 팔 움직임의 변형이 있다. 다른 그림에 비해 팔의 움직임이 수직이 아닌 수평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프렌치 스타일만 주기적으로 사용한다면 다른 스타일을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3. 논의

그림의 중요성은, 손으로 두드리며 연주하는 직접적인 방식과 달리 도구를 사용하여 연주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변화, 발전되어 연주에 더 세부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드럼 세트에서의 그림은 트래디셔널, 매치드 그림, 세부적으로 저먼, 아메리칸, 프렌치, 하이브리드 스타일로 다양하게 변화되어 왔다.

트래디셔널 그림과 매치드 그림은 기본적인 형태부터 차이점을 보이며 매치드 그림의 세부 스타일들 또한 양손목의 각도가 0°, 45°, 90°로 각기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 이 차이점은 쉽게 라켓을 사용하는 운동으로 예를 들 수 있다. 트래디셔널, 매치드 그림의 차이점은 라켓 기본 그림을 서로 다른 형태로 잡는 것이고, 매치드 그림의 세

부 스타일은 라켓의 각도가 다르다고 생각하면 된다. 각도에 따라 공이 타격되는 부분이 다르며 공이 나아가는 방향과 세기가 달라진다. 드럼 세트에서의 그림도 마찬가지로 그림의 형태를 어떻게 잡느냐, 어떠한 각도로 잡느냐는 직접적인 소리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1930년대부터 방송 매체의 발전으로 인해 텔레비전에서 드럼 세트를 연주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 그 당시 연주자들이 어떠한 그림으로 연주를 하는지 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 현재까지 최고의 드럼 전문 사이트라 평가받는 드러머 월드는 전 세계의 드러머들이 연주한 영상들을 찾아볼 수 있는 방대한 자료들을 갖추고 있다. 등재된 연주자는 총 519명으로 트래디셔널 그림은 177명 약 34%, 매치드 그림 342명 약 65%로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 저먼 스타일은 2명 약 0.3%, 아메리칸 스타일 307명 59%, 프렌치 스타일 11명 약 2%, 하이브리드 스타일 22명 약 4%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드러머 월드 사이트에 등재된 모든 연주자들의 영상을 비교, 분석하여 객관적인 통계를 바탕으로 그에 따른 장, 단점과 복합적 차이를 분석했다.

본 논문의 선행 연구 자료는 굉장히 부족하다. 김수영의 <드럼을 활용한 리듬 학습 지도 방안>과 안주희의 <Marching Band의 Drill 제작과 타악기 지도 연구>에서 그림의 형태가 설명, 언급되지만 음악적, 연주에 관한 것이 아닌 교육적인 목적을 가진 연구이기 때문에 소리와 연주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결과는 찾기 어려웠다. 이처럼 그림은 드럼 연주에서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방법이지만 별다른 특징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연주자 개개인마다 신체적 차이와 음악적 성향, 연주 실력 등이 다르기 때문에 평균값을 설정하는데 편차가 클 수도 있지만 더 큰 범주와 세부적인 통계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판단된다.

4. 결론

현대의 대중음악에서 연주되는 악기 중에 드럼 세트는 스틱을 사용해 연주하기 때문에 그것을 잡는 그림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악기이다. 가장 기초적인 그림 방법이 확고히 잡혀있지 않다면 잘못된 소리와 부정확한 연주로 음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그림 방법의 장, 단점과 자신에게 맞는 그림을 파악, 이해하고 활용해야 음악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다 할 수 있

다. 본 논문에서는 드럼 세트 연주 시 활용되는 그립 방법을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분석하여 연주 방법과 그에 따른 복합적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립 방법은 크게 트레이디셔널 그립과 매치드 그립으로 나누어졌으며 세부적으로 매치드 그립은 저먼, 아메리칸, 프렌치, 하이브리드 스타일로 분류되었다. 트레이디셔널 그립의 시작은 마칭 밴드의 드럼 라인 연주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형태는 오른손잡이 기준 왼손 언더핸드, 오른손 오버핸드로 양손을 다르게 잡는다. 그렇기에 양손 높이의 차이가 생겨 드럼 세트에서의 연주가 부정확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양손을 다르게 분리된 형태로 잡아 연주하면 각각의 소리를 세부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브러시 스틱의 연주에서도 특화된 그립 방법으로 재즈 장르에서 많은 연주자들에 의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치드 그립은 양손을 똑같은 형태로 잡는 방법이며 양손 모두 오버핸드 방식으로 잡는다. 세부적으로 저먼, 아메리칸, 프렌치 스타일로 나뉘며 그 예외로 두 가지의 스타일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스타일까지 포함시킨다. 저먼 스타일은 손목 부분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손목을 사용하여 스트로크의 정확성과 세기를 미세하게 조절하며 채찍질하듯 연주하는 몰러 주법의 활용으로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한의 속도, 세기, 효율성을 만들어 낸다. 힘을 빼지 못하는 습관과 무리한 움직임은 손목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지만 이러한 문제만 해결한다면 최적의 소리를 만들어 내는데 가장 좋은 그립 스타일이라 생각한다. 아메리칸 스타일은 저먼, 프렌치 스타일의 중간 격으로 그립 방법이 쉽고 연주하기 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손목과 손가락의 적절한 사용으로 매치드 그립 스타일들 중 연주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며 각각 스타일의 장점을 가져왔기 때문에 높은 안정감을 보여준다. 프렌치 스타일은 손목 위 팔꿈치 아래의 전완 부분과 손가락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른 스타일과 다르게 팔이 수직이 아닌 수평으로 돌리듯이 연주하기 때문에 큰 힘을 필요로 하지 않아 근력이 부족한 연주자가 쓰기에 적절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특히 빠른 연주를 할 때 손가락의 주된 사용으로 스트로크를 더 빠르게 연주할 수 있다. 하지만 큰 소리를 필요로 하는 록이나 메탈과 같은 연주에는 사용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하이브리드 스타일은 매치드 그립의 스타일들 중 두 가지를 혼합하여 잡는 형태이다. 그 형태는 연주자들마다 어울리는 다양한 조합법이 만들어지며 각 손에 맞는 스타일로 잡기 때문에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하이브리드 스타일을 먼저 잡기 전 다른 형태들을 모두 시도해 본 후

자신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아 연주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립은 여러 형태로 나누어져 있지만 연주자에게 맞는 그립의 형태를 찾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 연주자에게 맞지 않는 그립을 사용한다면 더 이상의 실력 향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때까지 했던 잘못된 연주 습관을 고치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그 결과 하나의 스타일만 고집하는 것이 아닌 여러 가지 그립의 형태를 이해, 학습, 연구, 연습 그 이상의 단계를 거친다면 본인에게 맞는 그립을 활용하여 연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1] Naver Korean Dictionary. Grip. https://dict.naver.com/search.dict?dic_query=grip&query=grip&target=dic&ie=utf8&query_utf=&isOnlyViewEE=.
- [2] H. S. Han. (2019). *Drum technique analysis using odd division method*. Master's thesis. SangMyung University of Contemporary Performing Arts, Department of Music Technology, Seoul.
- [3] H. S. Han & T. S. Cho. (2020). A Study on the Structure and Performance Technique of Snare Drum.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1(1), 205-207.
- [4] S. E. Jeong & T. S. Cho. (2020). A Study on the Electric Guitar -focusing on Fender Stratocaster-.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cooperation*, 21(5), 426-432. DOI : 10.5762/KAIS.2020.21.5.426
- [5] Youtube. Buddy Rich. <https://www.youtube.com/watch?v=UyXUyuXEY84>
- [6] H. C. Kim & T. S. Cho. (2020). A Study on Employment Channels to Find A Way for Practical Music Students -About the Need and the Direction of Use of The Certificati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22(1), 379-384. DOI : 10.5762/KAIS.2021.22.1.379
- [7] K. M. Kim. (2018). *A study of Vinnie Colaiuta Polyrhythm Techniques Drumming : Focused on Sting Albums*. Master's thesis. SangMyung University of Contemporary Performing Arts, Department of Music Technology, Seoul.
- [8] J. H. Jo & T.S. Cho, (2021), For professional music education A Study on the Need for Practical Music Teacher Certificati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vol.22, no.5, pp. 180-187 DOI : 10.5762/KAIS.2021.22.5.180
- [9] Youtube. Charli Persip.

https://www.youtube.com/watch?v=x_E11BlO6aY

- [10] H. S. Han. (2018). An Analysis of the Drum Techniques of Anika Nilles. *Popular Music Contents Society*, 2(2), 54-62.
- [11] Youtube. Jim Chapin.
<https://www.youtube.com/watch?v=QNBn8lnisL4>
- [12] C. K. Lee. (2017). *A Structurally Developed Program for Rhythm Education*. Doctoral dissertation. SangMyung University of Contemporary Applied Music, Department of Music Technology, Seoul.
- [13] Youtube. Whiplash.
<https://www.youtubecom/watch?v=GhIW7JO8IfI>
- [14] S. Y. Kim. (2010). *The Guide Plan of Rhythm Learning to Utilize Drums*. Master's thesis. Daejin University of Major in Music Education i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ocheon.
- [15] J. H. An. (2007). *The Study on Marching Band Drill Production and Percussion Instrument Instruction*.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of Major in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Daejeon.
- [16] S. Y. Kim & T. S. Cho. (2020). A Study on the Album MonoCrom.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21(2), 205-211.
DOI : 10.5762/KAIS.2020.21.2.205
- [17] H. J. Kim. (2020). The meaning of art revealed by the origin of the work of art and An outline of ar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1(8), 123-129.
DOI : 10.5762/KAIS.2020.21.8.123
- [18] J. S. Kim. & T. S. Cho. (2018). A Study of Shin Hae Chul's Music With focus on N.EX.T album.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12), 212-277.
DOI : 10.5762/KAIS.2018.19.12.212

조 태 선(Tae-Seon, Cho)

[경력]



- 2010년 2월 : 실용음악학회 회장
- 2016년 6월 : 대한가수협회 학술위원회 위원장
- 2019년 8월 ~ 현재 : 한국실용음악교 육협회의 회장
- 2019년 8월 ~ 현재 : 한국대중예술음 협회 회장
- 2001월 3월 ~ 현재 : 청운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
- 관심분야 : 보컬, 싱어송라이터, K-pop
- E-Mail : entheos@chungwoon.ac.kr

한 호 석(Ho-Seok, Han)

[경력]



- 2019년 2월 : 상명대학교 문화기술 대학원 음악학석사
- 2019년 2월 : 쿵치킵딱따쿵치킵 드럼 스튜디오 대표
- 2019년 8월 ~ 현재 : 청운대학교 실 용음악과 강사
- 2014년 2월 ~ 현재 : 밴드 굿모닝키 즈, 코롱코롱해적단 메인 드러머
- 관심분야 : 드럼, 실용음악
- E-Mail : hanhoseok@naver.com